

박상우 장관 “규제 완화, 식품산업 성장”

〈국토교통부〉

익산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해 의견 청취 국가식품클러스터 후속절차 이행해 산단 지정 서두를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익산 주민들을 만나 원도심 활성화 지원과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상우 장관은 17일 국내 첫 청년시청 등 익산시 중앙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익산의 도시재생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상욱 LH 부사장, 김영재 식품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했다.

원도심인 중앙동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발전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나, 신도심 개발로 상권이 이동하며 침체기를 맞았다.

이에 익산시는 2018년 중앙동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돌입했다.

‘역세권’ 정체성을 되살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 ‘청년시청’과 다문화 선도도시의 거점 ‘글로벌 문화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중앙동 골목을 거닐며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꼽히는 청년시청과 근대역사관, 식품교육문화원 등 사업지를 직접 살폈다. 이어 지역주민

및 청년시청에 입주한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박 장관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성 있는 지역을 공간 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복합개발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집중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익산 구도심에 자리한 청년시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어 박상우 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자리를 옮겨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 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인 만큼 새로운 기회를 잡도록 준비해야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해 균형발전은 이루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특자도, 관광도 새롭게 ‘도약’

출범 기념 전북투어패스 · 100선 판매관 할인 이벤트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18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는 전북투어패스 특별할인행사(더 특별한 전북투어패스)가 오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14일 동안, 최대 40% 할인된다.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투어패스 인기상품에 대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북도를 찾고 도민들이 좀 더 일상생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판매는 온라인 채널(티몬, 위메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통합이용권(12월23일권)과 지역권(한옥마을권, 남원순항여행권, 무주반디여행권)을 대상으로 기존 판매가격 대비 최대 40%라는 파격할인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의 구매를 유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도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초성 맞추기 퀴즈 이벤트’를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 동안, 전북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

자 1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서도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20% 상품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뿐 아니라, 특별자치도 전환에 맞춰 기존 순환관광버스를 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로 명칭 변경하고, 20개의 주요 관광 코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19일에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지난 12월 13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촬영한 일본 후지TV ‘사카가미 동물왕국’이 방영될 예정이다.

이는 관광 콘텐츠 다각화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동반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전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반려동물 친화·동반 관광도시로의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만전

추가 발생 없지만 행정명령 준수 등 방역태세 유지 당부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9일 익산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 30여 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가금농장의 소독 및 방역태세가 해이해질 수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준수의 재강조 및 미준수시 강력한 처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특정차량(가축, 사료, 깔짚, 분뇨, 방역차량)의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금지를 시행했다.

진입이 가능한 축산차량도 가금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10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수시로 지도 및 점검 중이다.

이에 전북도는 평시 도내 14개소로 운영되던 거점소독시설을 올해 동절기에는 29개소까지 확대 운영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언론을 통한 홍보 및 가금농장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방역수칙 홍보에 나서고 시·군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발생농장은 1주에 2회 이상 농장 내부에 대해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주변 농장 및 도로에 대해서도 과도할 정도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4월 중순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높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시기만큼 가금농장의 자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차량진입통제와 함께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민관 합심해 성공 이끈다

2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민간단체 CEO포럼 방문 컨설팅

전북도가 전국 최초 민관상생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이하, 전북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가 올해 첫 시행하는 전북형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대표 및 임직원의 추진 의지, 필요사항에 대해 1:1 사전컨설팅을 위한 참여의향서를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도입 희망기업이 참여의향서에 최소한의 정보(기업명, 매출액, 종업원 수 등)만 제공하면 (사)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이하, CEO포럼) 임원 20

여명이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도입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현장 제조혁신활동의 이해와 올바른 공급기업 선정 등을 안내하여 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CEO포럼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도내 삼성 스마트공장 수혜기업들로 구성된 민간주도 확산협의체로, 스마트공장 구축 공모선정 요령, 성과사례 공유 및 기업대표의 의지 고취, 기업간 제조혁신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CEO포럼은 자신들의 경험담

등을 소개하며 제조혁신 전문가의 현장 혁신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형 프로젝트를 위해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최소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나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 보유자를 채용 중에 있으며, 다음달까지 제조혁신 전문가(멘토) 채용이 완료되면 혁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형 프로젝트는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타 기관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구축 중인 기업과 휴·폐업 중인 기업, 국제 및 지방세 체납중

인 기업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의향서는 네이버 폼(<https://naver.me/5XT2V4wF>)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과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국 최초 민관상생의 전북형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참여의향서 접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의 시너지가 지속 확장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